

한빛원전, 후쿠시마 급 사고뎀 907조 피해

고리원전 2492조·월성원전 1419조·울진원전 864조 피해 한전 '해외사례 조사·분석' 보고서 ...이훈 의원 국감자료

영광 한빛원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907조원 가량의 피해(손해비용)가 발생하고, 부산에 위치한 고리원전에서 유사 상황 발생시 최대 2492조원의 피해가 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전의 경우 사고 발생시 결집을 수 없는 피해를 낸다는 점에서 인구 150만 광주와 인접한 한빛원전에서의 비상상황을 감안해 체계적인 사고대응 훈련 및 피해자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울산 등 타 사·도에서 원전 사고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방사능방재지원센터 등을 갖춘 원자력방재타운 건립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광주·전남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 의원

이 국감자료에 앞서 공개한 한국전력의 '군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한빛원전 907조원, 고리 원전 2492조4000억원, 월성 원전 1419조8000억원, 울진 원전 86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개 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연구소(JCER)의 분석 방식에 따라 추산했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을 전제로 했고, 원전 지역의 인구밀집도·지역총소득·지역평균임금 등을 보정한 것이다. JCER은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로, 지난해 4월 두 번째 후쿠시마 사고 비용 전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빛원전의 경우, 중대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액 82조2000억원 ▲폐로비용(원전 시설 폐쇄비용) 94조원 ▲제염비용(방사성물질 제거작업 비용 등) 138조4000억원(경주반입기준 719조4000억원) ▲행정경비 11조4000억원 등의 피해액이 산출됐

다. 원전 전문가인 이정운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미국 기계공학기술사)는 "피해 내용별, 피해 추정금액 산정이 처음 이뤄졌다는 이번 자료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국내 원전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산 고리 원전 반경 30km에 거주하는 인구는 344만명으로, 같은 범위에 거주하는 후쿠시마의 인구(14만명)보다 무려 24배 많다. 원전 사고 발생 시 국내 피해 규모는 더 늘 수밖에 없다.

한빛원전의 경우 원전 반경 30km에 13만 907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이 편서풍(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지대에 놓였고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40km가량 떨어진 광주에 인구 150만 명이 산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처럼 원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천문적인 피해액이 발생하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은 체계적인 원전 대응 시스템을 갖추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실제, 울산시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사업

을 추진한다. 원자력방재타운에는 방재 지휘와 예찰, 훈련, 대피, 방재 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유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간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한빛원전의 경우 선진화된 방사능 방재시스템 및 훈련 시설 구축, 유사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구축 등을 주문하고 있다.

원전 전문가 이정운 대표는 "검증된 전문가 집단이 마련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사고 대비 훈련, 가상(증강)현실을 동원한 훈련이 가능한 방재시스템 및 훈련 체험센터를 갖추는 한편 평소 일반 병원으로 운영하다 유사시 피폭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 정치권, 광역자치단체가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최고 공예명장 찾습니다

도, 금속 등 8개분야 8일~19일 후보 접수

전남도는 전남 최고 공예인을 찾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018년 전남도 공예명장' 후보 접수를 받는다 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예명장을 선발해온 전남도는 올해도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산업 계승발전에 기여한 도자 등 8개 분야(도자, 유리·석, 금속, 목·죽·세, 종이, 섬유, 가죽, 기타) 공예인 중 2명 이내로 공예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자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자격 요건은 공예산업 분야 15년 이상 직접 종사하며 전남도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 또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 수상 경력자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거주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공예인이다.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전남도 공예명장선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공예인에게는 명장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5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남도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286-5452.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세계 호남 향우 400여명 광주 방문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광주시는 3일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세계 각지에 사는 호남 향우 40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세계 호남 향우회 총연합회(회장 이동수·필리핀)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대규모 방문단을 꾸렸다.

이들은 이날 전북 남원 광한루 등을 돌

아본 뒤 4일 광주에서 양동시장과 광주 비엔날레를 방문한다.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고향사랑 장학금 8800만원을 호남권 학생 88명에게 전달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세계 호남인의 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자 절반 줄인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지난 2016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자살 339명, 교통사고 117명, 산업재해 30명 등 안전 관련 사망자는 486명으로, 앞으로 5년간 각각 90명, 63명, 15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일 정중재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8년 지역안전지수 추진실적 점

검 및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지역안전지수 7개 지표의 분야별 사고현황을 점검·분석하고, 사망자 수와 사고발생건수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자살, 교통, 산업재해 분야에서의 사망자 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 고령친화용품 등을 전시하는 '2018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4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ICT 의료·의료관광·건강관리와 미용·고령친화용품 기업 등 155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의료 제품을 선보인다.

광주시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생체 의료용 소재부품과 광의료 등 지역 육성 사업 기반 기업도 함께 참여한다.

이 자리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초청한 15개국 50여 명의 바이어와 함께 수출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욱일기군함 입국 반대" 3일 오후 서울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아베 반일청년 학생 공동행동' 학생들이 제주도 국제관함식 행사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계양을 고수하는 것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확대

10~15개 선정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전남지역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

범적으로 10~1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기계·장비 구축,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제품 품질 향상과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해 시군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지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6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전남지역에는 1000여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선 7기 내에 2000여 개로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소상원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 시설장비 노후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비 지원이 종료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가을단풍 여행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해외여행 · 국내여행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허니문 · 단체여행

골프투어 · 기차여행

가을 전세열차 상품	1. 정동진일출 · 설악산단풍 기차여행 · 무박 2일		10월 26일(금)	120,000원
	2. 제천 청풍호 · 도담삼봉 기차여행 · 당일		11월 03일(토)	85,000원

정기열차 상품	1. 문경새재(옛길) · 월악산승계계곡 단풍여행 · 당일		10월 20일, 27일, 11월 3일	95,000원
	2. 계룡산 갑사로 가는길 · 공산성 단풍여행 · 당일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11월 3일	75,000원
	3. 남이섬 자유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4.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5. 서천 국립생태원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섬여행 상품	1. 홍도 · 흑산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2. 울릉도 · 독도 여행 · 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3. 거문도 · 백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4. 백령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85,000원~
	5. 대마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70,000원~

버스여행 상품	1. 인제 자작나무숲&곰배령 트레킹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80,000원~
	2. 울산 동해미행 버스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3. 고령 고분군 트레킹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4. 통영 동피랑 마을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70,000원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